‘청렴 메카’ 장성에 체험 물결 쇄도

연초부터 대구시·기술보증기금 등 20개 단체 1000여명 신청
박수량 백비·필암서원·축령산 등 각종 체험콘텐츠 인기 비결

‘청렴의 메카’로 불리는 장성에서 청렴교육을 체험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청렴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1258개 기관·단체와 7만7177명이 장성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9년째 접어드는 이 프로그램은 연초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방공무원 교육기관인 지방인재개발원을 비롯해, 대구시, 부산시 중구, 기술보증기금 등 지자체와 정부출연기관 등 20여개 단체에서 1041명이 벌써부터 체험 신청을 완료했다.

장성군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호남을 대표하는 청백리인 아곡(莪谷) 박수량(1491~1554년)과 지지당(知止堂) 송흠(1459~1547년)을 모티브로 한 청렴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해 전국적인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이 프로그램은 두 청백리의 생애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해석한 현대적 의미의 청렴을 주제로 한 특강과 청렴 유적지를 돌아보는 체험으로 짜여졌다.

청렴정신의 상징인 박수량 선생의 ‘백비(白碑)’와 송흠 선생의 ‘관수정(觀水亭)’을 비롯해 호남 유일의 사액서원인 ‘필암서원’ 등을 전국 최대의 편백나무 인공조림지인 축령산과 묶어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청렴다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청백리 정신과 선비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교육생이 직접 청렴 다짐서를 작성해 청렴 정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교육이다.

군은 참여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천연염색과 농촌체험, 쿠킹클래스 등 장성지역 농업법인이 운영하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에 연계해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성군의 청렴교육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교육생들이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장성에 머무르면서 지역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현재까지 거둔 직접 소득만 37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청렴은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라며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통해 전국 사회교육의 효시를 연 장성군이 뉴(New)문불여장성(文不如長城)의 근간이 되는 청렴 정신을 전파하는 ‘평생교육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 공공도서관 열람실.

담양 군민들의 독서 열기 ‘후끈’
공공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이용객 큰폭 증가

담양 군민들의 독서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23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양 공공도서관(관장 김종성)의 도서 대출 권수와 도서관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간 대출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4만6740권(1인당 0.97권)에 불과했으나 2017년 7만3995권(1인당 1.54권), 2018년 9만7054권으로 군민 1인당 2권 이상 책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도서관 이용객은 전년 대비 2만6000여명이 증가한 18만5834명으로 전남 지역 타 시·군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담양 공공도서관은 2016년 3층 건물 증축으로 다양한 문화 공간을 확보해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인문학 교실’과 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처럼 이용객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10월 전남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최초로 ‘스마트 도서관’(무인대출반납기)을 도입해 지역민들이 365일 도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군은 전국 최초로 인문학교육특구로 지정됐다”며 “도서 구입을 늘리고,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syj827@

장성군, 음식점·식품업소 등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장성군이 음식점과 식품 제조업소,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23일 장성군에 따르면 2019년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은 위생 업소가 낙후된 시설, 장비 등을 교체, 구입하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낙후된 업소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장성관광시대’ 준비 일환으로 쾌적한 식당 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보다 사업비를 늘려 34개 업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범위도 다양해 저온 저장고 구입, 입식 테이블 설치비부터 주방이나 화장실 시설 개선, 주방 내부 폐쇄회로TV(CCTV) 설치, 내부 인테리어 변경 등 업소 사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신청은 25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현지 조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청 환경위생과(061-390-7312)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식당은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성의 이미지를 결정짓고 그 지역의 매력을 경험하는 하나의 관광 상품”이라며 “관광객들이 찾는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위생과 쾌적한 환경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광주일보 뉴스
facebook
페이스북에서 보세요

창평 전통 쌀엿 이렇게 만들어요 담양군 창평면 주민들이 다가오는 설을 맞아 밀려드는 주문에 엿가락을 늘이느라 분주하다. 창평 쌀엿은 담양에서 나온 대숲 친환경 햅쌀 등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고 대량생산이 아닌 가마솥과 장작불을 이용해 전통방식 그대로 만들어 고유의 맛과 정성이 담겨있다. 〈담양군 제공〉

화순군, 신규사업 국비 확보 본격 나서
생물산업 육성 5500억 등 주요 사업 34건 전남도와 공조

화순군이 최근 국고지원 신규사업 보고회를 열고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고회에서 새로 발굴한 사업은 화순의 미래 성장 동력인 생물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농업·농촌 활성화,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34건이다.

군은 생물자원 인프라를 연계한 국가 생물의약산업 거점 구축에 필요한 5500억원 규모의 ‘생물의약산업벨트 기반 구축사업’을 올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전남도와 공조하기로 했다.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도곡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 공립수목원과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광덕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도 추진한다.

군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맞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SOC사업과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가 큰 현안 사업을 1월 말까지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추가 발굴 사업은 전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인 문화·생활체육, 관광인프라, 도시재생, 농어촌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산업단지 재생,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신재생에너지 등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조만간 발주한다.

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쳐 화순 치유의 숲 조성, 향청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비 1701억원을 확보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군, 올 농업인 교육 안내 리플릿 3000부 배포
4개분야 30개 과정 강의 소개

화순군이 올해 개설·운영하는 농업인 교육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교육 홍보 리플릿 3000부를 배포한다.〈사진〉

이번에 제작한 ‘2019년도 농업인 교육 안내’ 리플릿에는 한 해 동안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는 4개 분야, 30개 과정의 상세한 강의 일정 등이 실렸다.

화순군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9개 과정,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12개 과정, 농업기계 교육 5개 과정, 농업인 정보화 교육 6개 과정을 진행한다.

리플릿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방문하면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할 수 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1년의 교육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리플릿 배부를 통해 많은 농업인의 교육 참여가 기대된다”며 “전 교육 과정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교육을 포함해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30개 과정과 별도로 농업인대학 2개 과정에 80명을 모집한다. 강소농 교육, 품목 농업인 연구회 교육, 농촌 생활 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